2024년도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인권 실태조사

- ERICA 학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

2025. 2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HANYANG UNIVERSITY HUMAN RIGHTS CENTER

보고서 목차

제 1 장 서론 ····· 4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 4

제 2 절 보고서 구성 ····· 5

제 2 장 조사방법 ····· 6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 6

제 2 절 조사내용 ····· 6

제 3 절 분석방법 ····· 7

제 3 장 조사결과 ····· 8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 8

제 2 절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 9

제 3 절 혐오표현 경험 ····· 14

제 4 절 인권침해 경험 ····· 18

제 5 절 인권교육 ····· 27

제 6 절 자유 응답 내용 ····· 30

제 4 장 결론 및 제언 ····· 35

<참고 문헌> ····· 38

<부록> 인권실태조사 설문지 ····· 39

표 목 차

<표 1> 조사 문항 …… 6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 8
<표 3> 인권센터 인지도 …… 9
<표 4>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 10
<표 5> 인권센터 인지 경로 …… 11
<표 6> 인권센터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 12
<표 7> 사건처리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 12
<표 8>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 13
<표 9> 혐오표현 경험 …… 14
<표 10> 혐오표현 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 15
<표 11> 혐오표현을 자주 경험한 곳 …… 16
<표 12> 혐오표현 대응방식 …… 17
<표 13> 혐오표현 발생 이유 …… 17
<표 14> 인권침해 경험 …… 18
<표 15> 인권침해 경험 유무 …… 19
<표 16> 인권침해의 유형 …… 21
<표 17> 가해자 특성 …… 22
<표 18> 피해발생 장소 …… 22
<표 19> 피해발생시 대응방식 …… 23
<표 20> 인권침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 …… 25
<표 2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 26
<표 2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 27
<표 23> 인권교육 경험 …… 28
<표 24> 인권교육 장소 …… 28
<표 25> 인권교육 도움 정도 …… 29
<표 22> 인권교육 필요성 …… 29

그 림 목 차

<그림 1> 인권센터 인지도 ····· 10

<그림 2> 인권센터 인지경로 ····· 11

<그림 3>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 13

<그림 4> 혐오표현 경험 ····· 15

<그림 5> 혐오표현 발생이유 ····· 18

<그림 6> 인권침해 경험 ····· 19

<그림 7> 인권침해 유형 ····· 21

<그림 8> 피해발생 장소 ····· 23

<그림 9> 피해발생시 대응방식 ····· 24

<그림 10> 인권침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 ····· 25

<그림 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 26

<그림 1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 27

<그림 13> 인권교육 경험 ····· 28

<그림 14> 인권교육 도움정도 ····· 29

<그림 15> 인권교육 필요성 ····· 30

제 1 장 서 론

제 1 절 조사의 배경 및 필요성

대학 인권센터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내의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담 및 사건처리 등 대응을 맡는 성희롱·성폭력 기구로 출발하였다. 그러나 대학 내에서 성희롱·성폭력 외에 다양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포괄적 인권침해를 담당하는 구제기구의 설치가 지속적으로 요구되었다.[1]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학원생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권고하면서 대학원생 인권장전 마련과, 대학 내 인권 보장 실효성 제고를 위한 인권전담 기구의 설치를 제시하였고, 이를 계기로 대학 내 인권기구의 설치가 가시화되기 시작했다.

앞서 언급된 인권기구란 인권의 보호(protection), 증진(promotion), 구제기능(remedies)을 수행하는 기구로서, 인권보장의무가 있는 모든 조직에서 필요한 기구라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측면에서 대학 인권센터는 학내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 구제 역할을 수행하는 학내 인권의 핵심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불과 몇 년전만 하더라도 일부 대학만이 통합적 인권기구를 운영하고 있었고, 이마저도 각자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며, 인권보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태였다. 그러나 2022년도에 고등교육법의 개정으로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의무화하였고, 인권기구가 해야 할 역할을 명시함으로써 일관되고 통합적인 인권센터의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르면 인권센터에서 해야 할 역할로서 1.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상담, 진정에 대한 조사 및 이와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2. 학교 구성원의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 3. 성희롱 성폭력 피해예방 및 대응 4. 그 밖에 학교 구성원의 인권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3] 이에 따라 인권센터는 사안 발생시 상담, 조사, 피해자 구제뿐 아니라 재발방지교육, 예방교육 및 홍보활동, 각종 인권프로그램, 실태조사를 통한 정책적 대안제시가 유기적으로 이어져 전 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대학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최근 대학에서는 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성희롱·성폭력 뿐 아니라 각종 고충민원 및 폭언 폭력과 같은 개인 간의 갈등이 신고되고 있으며, 온라인 상에서의 다양한 혐오표현 및 차별에 대한 인권침해 이슈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대학의 인권침해현황에 대한 현주소를 확인하고 분석하며, 앞으로 인권센터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일 것이다. 이에 본 보고서를 통해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의 재학생 인권현황을 확인하고 향후 교내 인권침해 사건의 회복적 해결을 위한 교육과 인식 개선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

1) 김소영, 「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 교육부, 2018.
2)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학회, 2019.
3) 고등교육법 제19조의3(인권센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 2 절 보고서 구성

본 보고서의 제2장은 재학생 인권실태조사 방법을 소개한다. 구체적으로 조사대상과 절차를 서술하고 설문지 구성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은 응답한 설문결과를 분석하는 통계방법을 소개한다.

제3장은 인권실태조사를 통해 도출된 통계분석 결과가 통계표와 함께 상세하게 서술된다. 조사결과를 통해 인권침해와 혐오표현 현황,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등이 다양하게 소개될 것이다.

제4장은 조사 결과를 통해 얻은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고 인권센터의 정책적 함의를 제시함으로써 향후 공동체가 나아가야 할 인권교육의 방향과 인식개선을 위한 사업, 정책들을 제안할 것이다.

제 2 장 조사방법

제 1 절 조사대상 및 절차

본 조사의 대상은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부 재학생'이다. 2024년 2학기 학적 등록 상태에 있는 재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언어는 한국어, 영어, 중국어로 실시하여 외국인 학생들의 참여를 장려하였다. 본 조사를 위해 선행 연구를 검토하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조사는 2024년 12월 1일부터 12월 14일까지 약 2주간 이메일과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여 참여케 하였다. 설문은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자기보고식 응답으로 진행되었다. 2024년 12월 14일까지 수거된 설문지는 총 284부(남성 101명, 여성181명, 기타2명)로 수집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통계분석 작업을 실시하였다.

제 2 절 조사 내용

본 조사에서 활용한 문항은 <표 1>과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정보를 수집하였다. 인권센터와 대학에 대한 인식 및 역할 확립을 위해 인권센터 인지도, 인지 경로, 대학의 사건예방 및 처리 인식 등의 7문항이 선정되었다. 학생들의 혐오표현 경험을 확인하기 위해 경험 유무, 대응방식 등의 4문항을 선정하였다. 인권침해 피해 현황과 그에 따른 대처방식을 확인하기 위해 인권침해 경험유무, 침해의 유형, 가해자의 특성, 발생 장소, 인권침해 시 대응방식,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과 도움이 되었던 지원 등의 12문항이 포함되었다. 기타 학생들이 인권교육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향후 받고자 하는 인권교육에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조사내용이 구성되었다.

<표 1> 조사 문항[4)]

분류	문항
기초정보(5)	성별, 연령, 학년, 소속, 국적(5문항)
인권센터 및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7)	-인권센터 인지도(1문항) -인권센터 인지 경로(1문항) -대학의 인권침해 사건예방 및 처리 인식(2문항) -인권센터의 역할 (3문항)
혐오표현 피해경험 (4)	-혐오표현 경험유무(1문항) -혐오표현 경험 장소(1문항) -경험시 대응방식(1문항)

	-혐오표현 발생의 이유(1문항)
인권침해 경험(12)	-인권침해 경험유무(1문항) -인권침해의 유형(1문항) -가해자의 특성(2문항) -발생 장소(1문항) -인권침해시 대응방식(1문항) -문제제기 하지 않은 이유(1문항) -인권센터의 도움 만족(2문항) -피해이후 가장 힘들었던 점(1문항)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1문항) -사건처리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1문항)
기타 (6)	-인권교육 경험유무(2문항) -인권교육 도움정도(1문항) -인권교육의 필요성(1문항) -인권교육 의견(1문항)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1문항)

제 3 절 분석방법

본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7.0을 활용하여 통계처리 하였으며,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대한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부 문항은 특정 변수의 평균을 구하는 등 통계적 처리를 하였고, 척도의 특성에 따라 집단 간 비교를 위한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를 활용하였다. 일원배치분산분석의 경우 집단 간 평균차이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척도의 특성에 따라 집단 간 비교를 위한 교차분석(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4) 부록 참고

제 3 장 조사결과

제 1 절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조사대상자들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의 비율은 여성이 181명(63.7%)으로 가장 많았고, 남성이 101명(35.6%), 기타 성별이 2명(0.7%)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은 19세-29세가 282명(99.3%)으로 가장 많았고, 30-49세와 40세-49세가 각각 1명(0.4%)으로 나타났다. 학년은 4학년이 79명(27.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3학년이 74명(26.1%), 1학년이 65명(22.9%), 2학년이 64명(22.5%), 5학년이 2명(0.7%)으로 나타났다. 소속은 공과대학이 77명(27.1%)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제문화대학으로 64명(22.5%),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39명(13.7%), 경상대학이 38명(13.4%)등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한국이 242명(85.2%)으로 가장 많았고, 중국이 35명(12.3%), 몽골이 3명(1.1%)등으로 확인되었다.

<표 2>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성별 (*n=284*)	남	101	35.6
	여	181	63.7
	기타	2	0.7
연령 (*n=284*)	19세-29세	282	99.3
	30세-39세	1	0.4
	40세-49세	1	0.4
학년 (*n=284*)	학부 1학년	65	22.9
	학부 2학년	64	22.5
	학부 3학년	74	26.1
	학부 4학년	79	27.8
	학부 5학년	2	0.7
소속 (*n=284*)	공과대학	77	27.1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9	13.7
	약학대학	10	3.5
	과학기술융합대학	30	10.6
	국제문화대학	64	22.5
	언론정보대학	14	4.9
	경상대학	38	13.4
	디자인대학	6	2.1
	예체능대학	4	1.4
	기타	2	0.7

국적 (*n=284*)	한국	242	85.2
	중국	35	12.3
	몽골	3	1.1
	말레이시아	1	0.4
	태국	1	0.4
	마다가스카르	1	0.4
	복수국적(한/중)	1	0.4

제 2 절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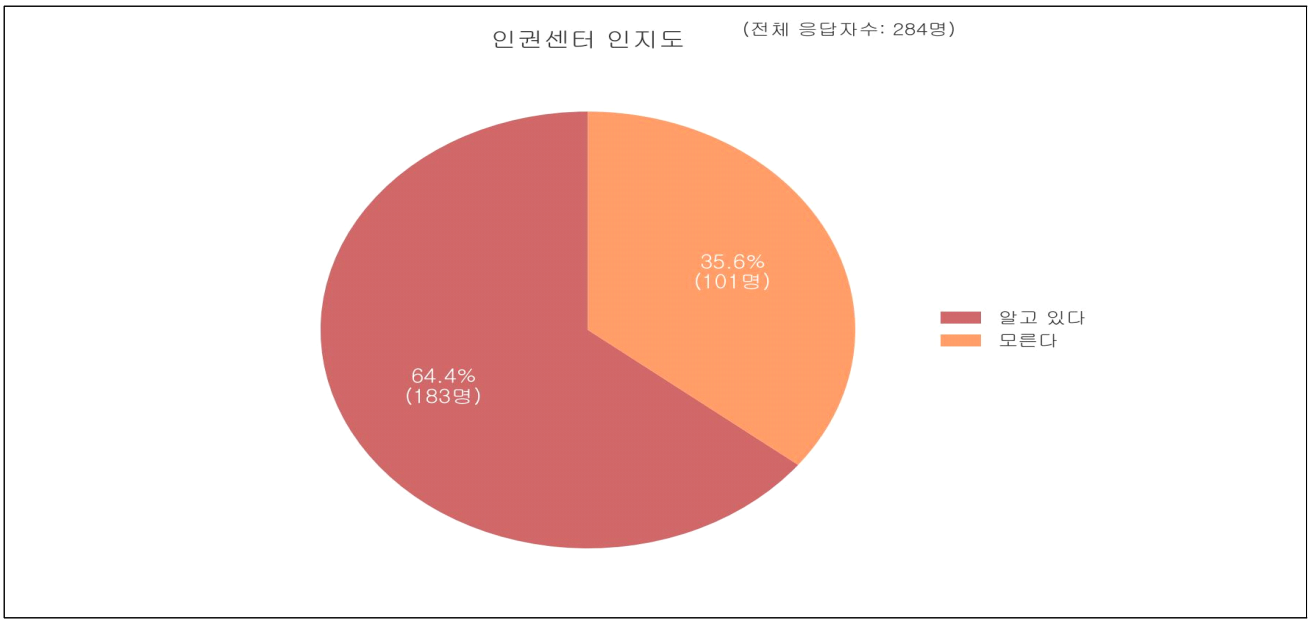
본 절에서는 본교 재학생들의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확인하고 인권센터의 역할 및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1) 인권센터 인지여부 및 인지경로 (복수응답)

본 문항에서는 우리대학에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 응답자의 183명(64.4%)의 재학생들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여 많은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한 인지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모른다' 고 응답한 학생 수도 101명(35.6%)으로 나타나 상당수의 재학생이 인권센터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권센터에 대한 홍보 및 인식확대가 요구된다. 인권센터의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성별과 소속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학년($F=2.626$, $p<.05$)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재학 기간과 비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지속적인 홍보 및 인권 프로그램 참여 유도를 통한 인식률 제고가 필요해 보인다.

<표 3> 인권센터 인지도 (단위: 명, %)

구분	알고 있다	모른다	합계
인권센터 인지도	183(64.4)	101(35.6)	284(100.0)



<그림 1> 인권센터 인지도

<표 4> 인권센터 인지도에 대한 집단 간 차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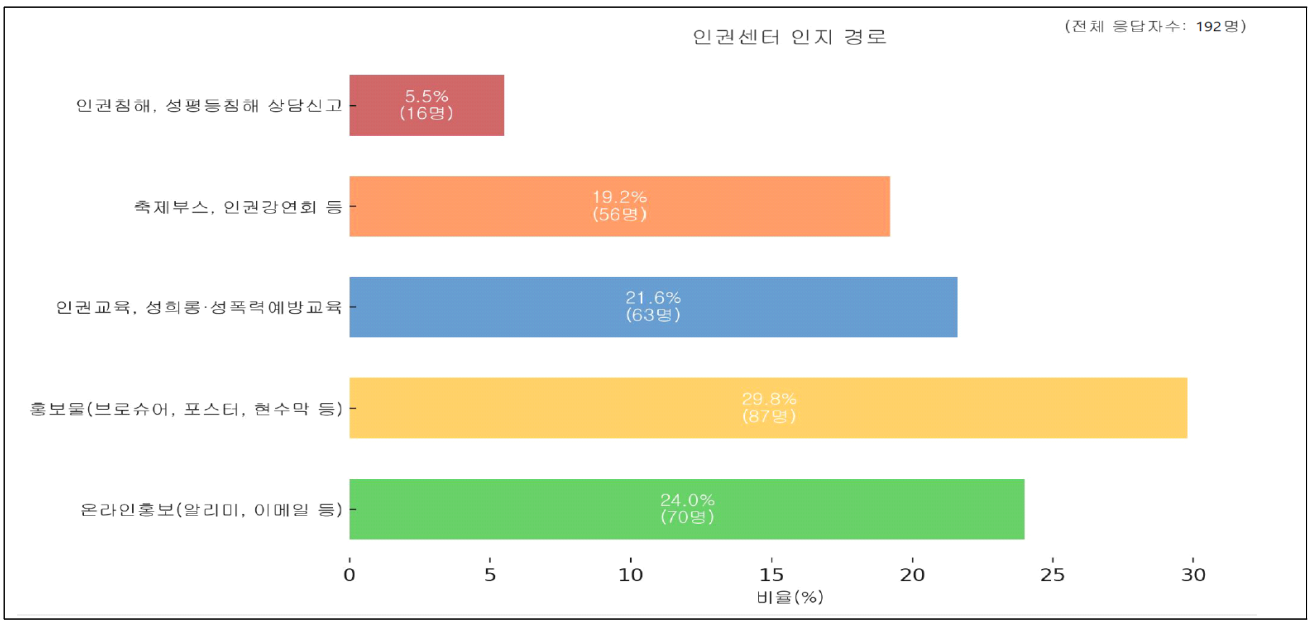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성	101	1.37	.484	.137	.872
	여성	181	1.35	.478		
	기타	2	1.50	.707		
학년	1학년	65	1.32	.471	2.626*	.035
	2학년	64	1.52	.504		
	3학년	74	1.32	.471		
	4학년	79	1.29	.457		
	5학년*	2	1.00	.000		
소속	공과대학	77	1.40	.494	1.317	.228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9	1.36	.486		
	약학대학	10	1.50	.527		
	과학기술융합대학	30	1.27	.450		
	국제문화대학	64	1.28	.453		
	언론정보대학	14	1.21	.426		
	경상대학	38	1.45	.504		
	디자인대학	6	1.67	.516		
	예체능대학	4	1.00	.000		
	기타	2	1.50	.707		

*p<.05, **p<.01, ***p<.001 *5학년은 외국인 학생(100%)으로 확인됨

어떤 경로를 통해 인권센터를 알게 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조사를 실시한 결과 홍보물(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87명(29.8%)으로 나타났고,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이 70명(24.0%)로 나타나 총 157명(53.8%)이 인권센터 행사 관련 홍보를 통해 인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외 인권교육과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축제부스, 인권강연회 참여 등도 영향을 준 것으로 확인된다. 본 조사에서는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홍보물 등의 실물 자료 및 온라인 홍보가 학생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프로그램을 알리는 실물 자료의 배포 및 다양한 방식의 온라인 홍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5> 인권센터 인지 경로(복수응답)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침해, 성평등침해 상담신고	16	5.5
축제부스, 인권강연회 등	56	19.2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예방교육	63	21.6
홍보물(브로슈어, 포스터, 현수막 등)	87	29.8
온라인홍보(알리미, 이메일 등)	70	24.0
전체	192	100.0



<그림 2> 인권센터 인지경로

2)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우리대학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문항은 5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했으며, 1점은 '매우 그렇지 않다', 5점은 '매우 그렇다'의 의미로 평균점수가 높을수록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고 해석된다. 우리대학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물은 결과 '매우 그렇다' 와 '대체로 그렇다' 가 총 208명(73.2%)으로 확인되어 절반이상이 우리 대학의 인권침해 대응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집단 간 차이를 분석한 결과 학년과 소속에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별($F=6.450$, $p<.01$)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성별에서 모두 평균이상의 긍정적 인식이 확인되나 여성보다 남성의 인식수준이 더 긍정적인 편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부정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응답이유를 확인한 결과, '공정한 사건처리 및 비밀유지의 어려움', '피해자 보호가 잘 안될 것 같다' 는 의견이 있어 인권센터 역할수행에 대한 신뢰도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

<표 6> 인권침해 사건처리에 대한 인식 (단위: 명, %)

구분	매우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합계
사건처리 인식	2(0.7)	9(3.2)	65(22.9)	139(48.9)	69(24.3)	284(100.0)

<표 7> 사건처리에 대한 집단 간 인식 차이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성	101	4.14	.762	6.450**	.002
	여성	181	3.82	.818		
	기타	2	3.00	.000		
	전체	284	3.93	.812		
학년	1학년	65	3.92	.957	1.235	.296
	2학년	64	3.88	.864		
	3학년	74	3.81	.696		
	4학년	79	4.09	.737		
	5학년	2	4.00	.000		
	전체	284	3.93	.812		
소속	공과대학	77	3.96	.910	.955	.477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9	4.00	.725		
	약학대학	10	4.20	.632		
	과학기술융합대학	30	3.80	.847		
	국제문화대학	64	3.83	.788		
	언론정보대학	14	3.64	.745		
	경상대학	38	4.03	.788		
	디자인대학	6	3.83	.753		
	예체능대학	4	4.50	.577		
	기타	2	4.50	.707		
	전체	284	3.93	.8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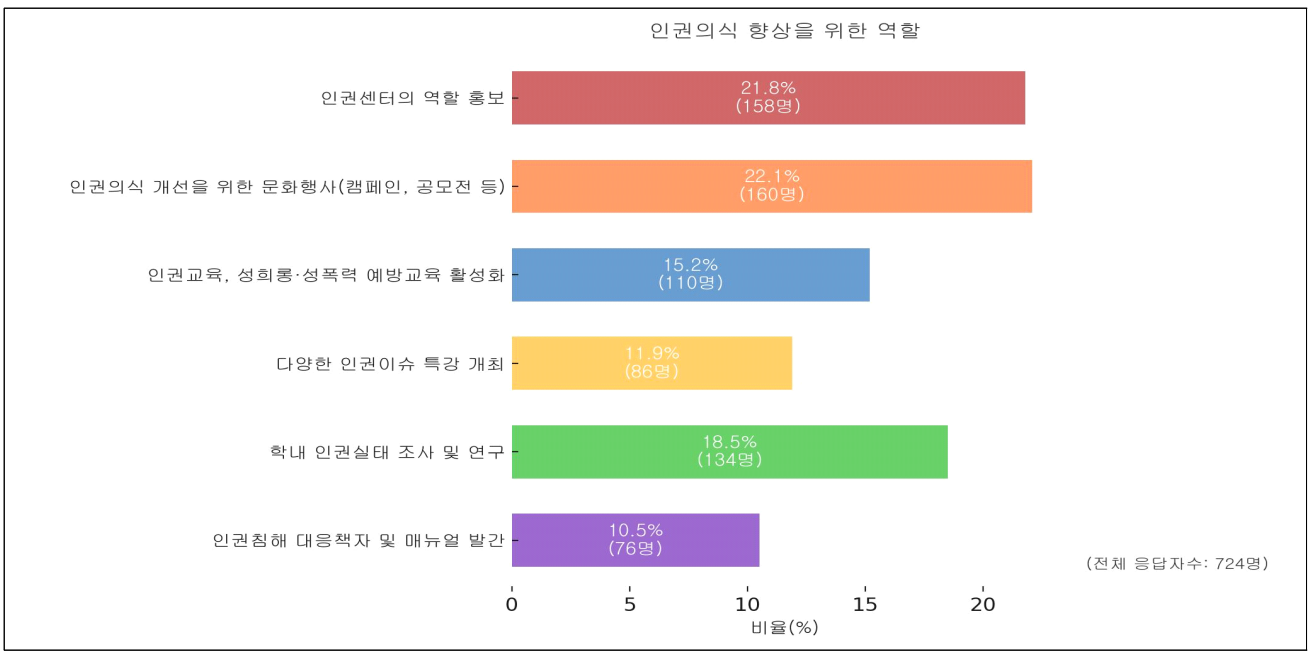
*$p<.05$, **$p<.01$, ***$p<.001$

3)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복수응답)

학내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인권센터의 역할을 묻는 문항에서는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가 160명(22.1%)으로 가장 많았고,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가 158명(21.8%)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가 134명(18.5%),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가 110명(15.2%)순으로 나타났다. 그 외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이 있었다. 앞서 <표 3>에서 인권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는 재학생들이 확인되었으므로, 조사결과를 반영하여 우리 대학 인권센터의 존재 및 역할을 알리고, 다양한 인권증진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구성원들의 참여율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

<표 8>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158	21.8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 공모전 등)	160	22.1
인권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활성화	110	15.2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86	11.9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134	18.5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	76	10.5
전체	724	100.0



<그림 3> 인권의식 향상을 위한 역할

제 3 절 혐오표현 경험

혐오와 관련해서 유엔에서는 ‘민족, 종교, 국적, 인종, 혈통, 피부색, 성별, 기타 다른 정체성 요인에 기인하여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해 이루어지는 경멸적이거나 차별적 언어 혹은 공격적인 말, 글, 행동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형태의 표현’ 이라고 정의하였고, 우리나라 국가인권위원회는 ‘어떤 개인 및 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그들을 차별하거나 적의,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 으로 정의내리고 있다[5]. 최근 들어 여성혐오, 남성혐오, 지역혐오, 세대 간, 계급 간 혐오 등 혐오의 대상 및 범위가 확대되고 일상화된 경향성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인터넷 및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표되고 확산되는 혐오스럽고 적대적인 내용은, 개인적인 수준에서 피해와 고통을 만들뿐만 아니라, 온라인 공간을 넘어서 현실사회에서의 긴장과 반목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대학은 혐오표현의 심각성과 부정적 영향에 대해 인식하고 확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본 조사에서는 ERICA 학생들의 혐오표현 경험을 조사함으로써 앞으로의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조사에서는 ‘혐오표현’ 을 발언, 행위, 몸짓 등의 비언어적 행위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고,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혐오표현 경험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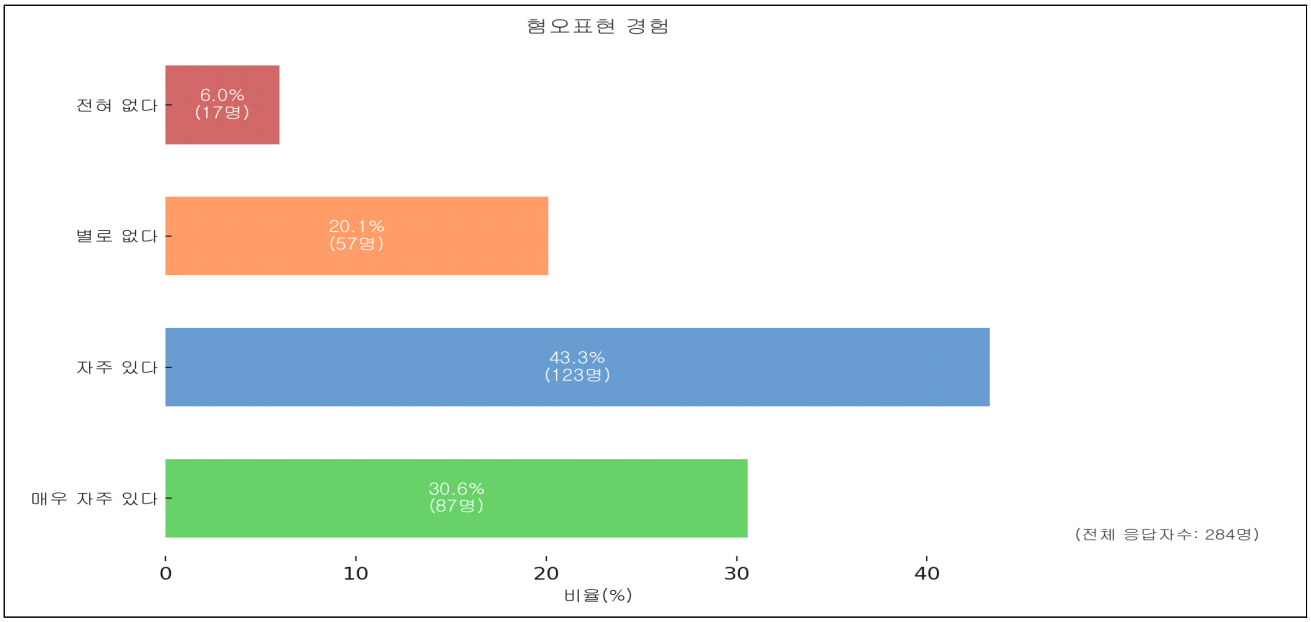
본 문항은 대학 재학 중,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등에서 혐오표현을 보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혐오표현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평소 자신이 경험한 정도에 대해 응답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자주 있다’ 가 123명(43.3%)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자주 있다’ 가 87명(30.6%)으로 나타나 총 210명(73.9%)이 혐오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에 따라 혐오표현 경험의 평균이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검증하고자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을 실시한 결과 남성보다는 여성의 혐오표현 경험이 조금 더 많았고, 단과대학은 경상대학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의성 검증에서는 국적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F=8.692$, $p<.001$), 한국학생들이 더 많은 혐오표현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 11>에서 온라인상에서 혐오표현을 많이 경험한다는 결과와 연결해 볼 때 한국 학생들의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 SNS활동으로 인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9> 혐오표현 경험 (단위: 명, %)

구분	전혀 없다	별로 없다	자주 있다	매우 자주	전체

5) 국가인권위원회, 「혐오표현 리포트」 보고서, 2019, 11면.

				있다	
혐오표현 경험	17(6.0)	57(20.1)	123(43.3)	87(30.6)	284(100.0)



<그림 4> 혐오표현 경험

<표 10> 혐오표현 경험에 대한 집단 간 비교 (단위: 명, %)

구분		표본수	평균	표준편차	*F*	*p*
성별	남	101	2.93	.803	.318	.728
	여	181	3.02	.897		
	기타	2	3.00	1.414		
	전체	284	2.99	.865		
학년	학부 1학년	65	2.86	.950	2.234	.066
	학부 2학년	64	3.22	.745		
	학부 3학년	74	2.96	.835		
	학부 4학년	79	2.95	.876		
	학부 5학년	2	2.00	1.414		
	전체	284	2.99	.865		
소속	공과대학	77	3.10	.699	1.895	.053
	소프트웨어융합	39	2.90	.940		
	약학대학	10	2.90	.876		
	과학기술융합대학	30	3.13	.571		
	국제문화대학	64	2.75	1.024		

	언론정보대학	14	3.00	.679		
	경상대학	38	3.21	.905		
	디자인대학	6	3.17	1.169		
	예체능대학	4	2.75	.957		
	기타	2	1.50	.707		
	전체	284	2.99	.865		
국적	한국	242	3.12	.766	8.692***	.000
	중국	35	2.23	1.003		
	몽골	3	2.67	1.155		
	말레이시아	1	2.00			
	태국	1	3.00			
	마다가스카르	1	1.00			
	한/중 이중	1	1.00			
	전체	284	2.99			

*p<.05, **p<.01, ***p<.001

혐오표현을 자주 보거나 들은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한 결과 1순위가 온라인 카페나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로 181명(63.7%)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는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의 SNS(social networking sites: 이하 SNS)가 126명(44.4%)으로 확인되었다. 기타 메신저서비스, 포털 등의 뉴스댓글, 온라인 게임 등에서 경험했다고 하여, 대다수의 응답자가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경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혐오표현을 자주 경험한 곳 (단위: 명, %)

구분	친구/지인	온라인카페 커뮤니티	메신저서비스	SNS	TV/라디오	포털등의 뉴스댓글	온라인 게임	전체
1순위	10(3.5)	181(63.7)	12(4.2)	61(21.5)	1(0.4)	11(3.9)	8(2.8)	284(100.0)
2순위	12(4.2)	68(23.9)	21(7.4)	126(44.4)	6(2.1)	41(14.4)	10(3.5)	284(100.0)

2) 혐오표현 경험시 대응방식

위와 같은 혐오표현을 접했을 때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보고 지나쳤다' 는 응답이 168명(59.2%)으로 가장 많았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는 응답이 65명(22.9%)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한 응답자도 32명(11.3%)이 확인되었다. 많은 학생들이 혐오표현에 대해 바르지 않다는 인식은 있지만, 보고 지나치거나 대응하지 않는 편을 택하고 있었다. 이는 활동하는 온라인 매체가 다양성을 존중하

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뒷받침 되지 않는 분위기라면 자신의 의견을 내는 일이 또 다른 갈등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일 것이다. 혐오표현은 개인적인 피해를 넘어서 사회적인 수준에서 동일시한 집단 간에 긴장과 갈등으로 번질 수 있기에, 혐오표현이 일상화되지 않도록 서로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배려를 일상화할 수 있도록 혐오표현 관련 교육을 실시함이 필요해 보인다.

<표 12> 혐오표현 대응방식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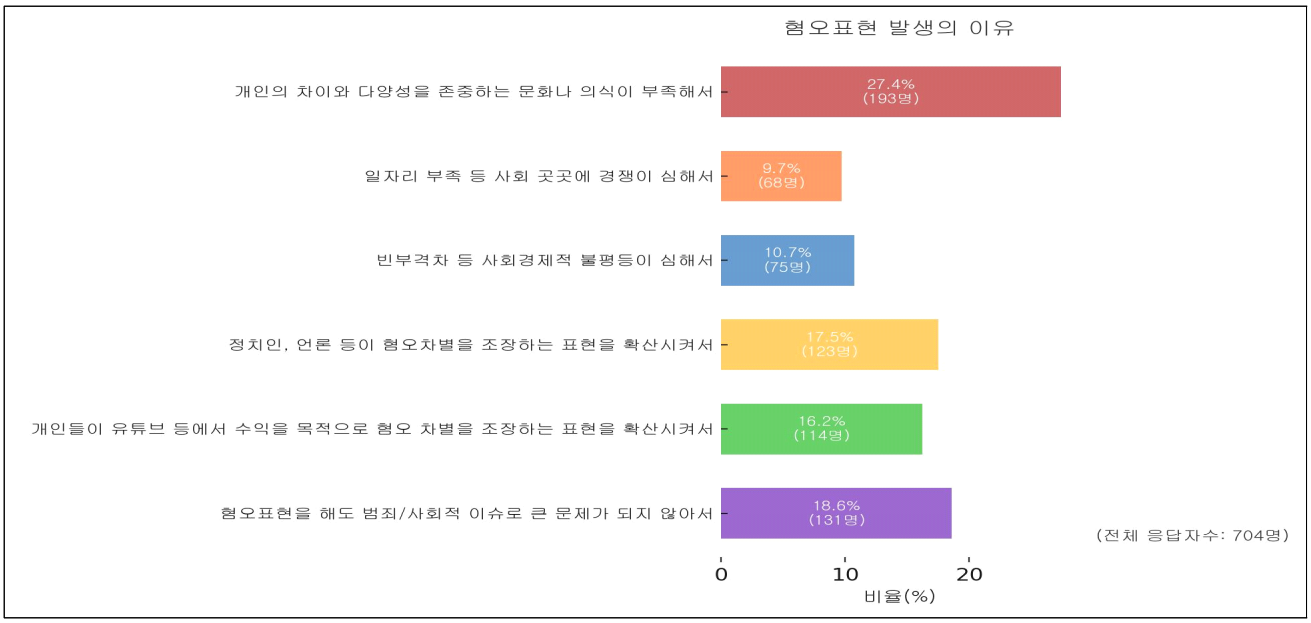
구분	동의한다는 표현함	동의하지만 보고 지나침	아무것도 하지 않음	반대하지만 보고 지나침	반대하는 표현함	전체
혐오표현 대처	1(0.4)	18(6.3)	65(22.9)	168(59.2)	32(11.3)	284(100.0)

3) 혐오표현 발생 이유 (복수응답)

혐오표현이 발생하는 이유에 대해 물은 결과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나 의식이 부족해서' 라는 응답이 193명(27.4%)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혐오표현을 해도 법적/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라는 응답이 131명(18.6%)으로 나타났다. 그 외 '정치인, 언론 등이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확산시켜서' 등의 응답이 확인되었다. ERICA 재학생들은 혐오표현 발생의 가장 큰 이유를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나 의식이 부족해서' 로 인식하고 있기에 다양한 문화와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를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존중이 일상화 될 수 있는 인권문화의 확산이 필요해 보인다.

<표 13> 혐오표현 발생 이유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나 의식이 부족해서	193	27.4
일자리 부족 등 사회 곳곳에 경쟁이 심해서	68	9.7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서	75	10.7
정치인, 언론 등이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확산시켜서	123	17.5
개인들이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확산시켜서	114	16.2
혐오표현을 해도 법적/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131	18.6
전체	704	100.0



<그림 5> 혐오표현 발생 이유

제 4 절 인권침해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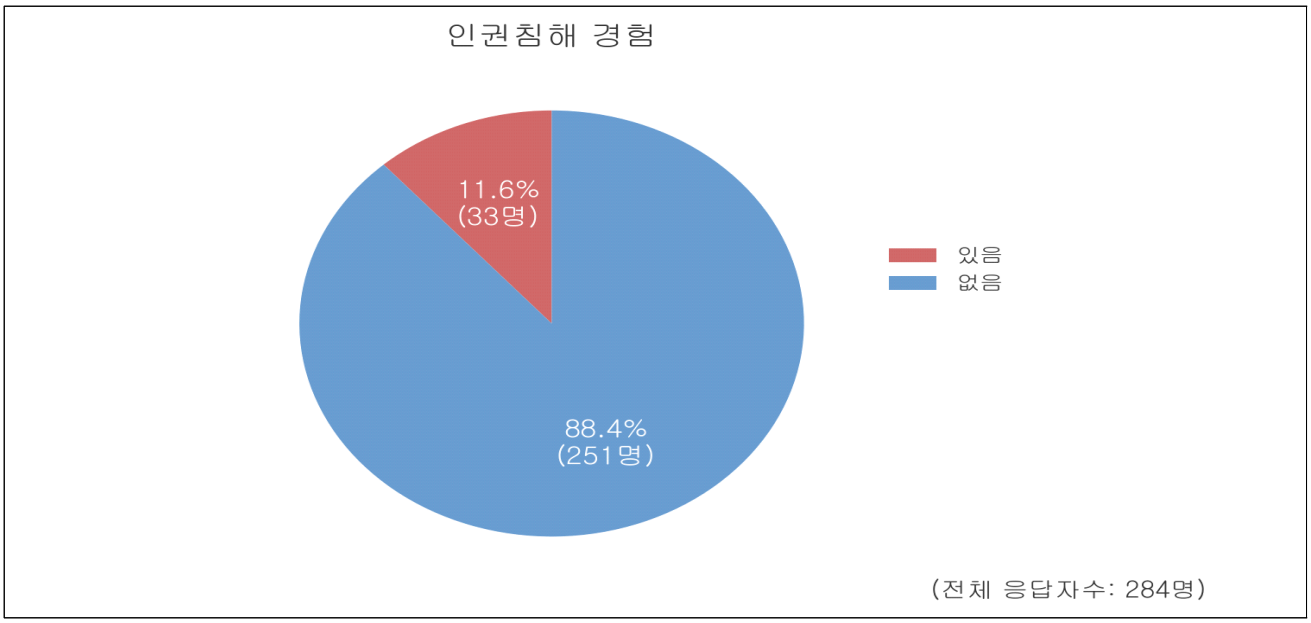
1) 인권침해 경험 유무

본 문항에서는 인권침해 피해 경험과 관련하여 직접 경험한 적이 있는지를 묻고 피해 유형과 발생장소, 가해자 관련 요인, 피해 발생 시 대처방식을 확인하였다. 인권침해에 대한 정의를 설명하고, 인권침해 경험 유무에 응답하게 한 결과 응답자 중 전체의 33명(11.6%)이 인권침해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입학 이후 최소한 1회라도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가 전체 1,902명중 883명(46.4%)으로, 대략 2명 중의 1명이 재학 중 인권침해를 겪어 인권침해의 빈번함을 보고한 바 있으나[6], 본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11.6%가 인권침해 경험이 있다고 하여, 대략 10명 중 약 2명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4> 인권침해 경험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경험유무	있음	33	11.6
	없음	251	88.4
전체		284	100.0

6) 장다혜 외 2인,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그림 6> 인권침해 경험

전체 응답자를 성별로 구분하여 경험유무를 확인한 결과 남성 중 '경험 있음' 은 9명(27.3%)으로 응답한 반면, 여성 중 '경험 있음' 은 23명(69.7%)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경험여부를 확인한 결과 학부 4학년 중 '경험 있음' 이 10명(30.3%)으로 가장 많았으며, 학부 2학년 중에 '경험 있음 9명(27.3%), 학부 1학년 중 '경험 있음' 은 8명(24.2%), 학부 3학년 중 '경험 있음' 은 6명(18.2%)순으로 확인되었다. 소속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여부를 확인한 결과 국제문화대학은 14명(12.1%)으로 나타났고,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6명(18.2%), 공과대학이 4명(12.1%), 경상대학이 4명(12.1%)순으로 나타났다. 집단에 따른 인권침해 경험유무의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카이제곱 검정을 실시한 결과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5> 인권침해 경험 유무 (단위: 명, %)

구분		경험 있음	경험 없음	전체	χ^2	p
성별	남	9(27.3)	92(36.7)	101(35.6)	3.799	.150
	여	23(69.7)	158(62.9)	181(63.7)		
	기타	1(3.0)	1(0.4)	2(0.7)		
	전체	33(100.0)	251(100.0)	284(100.0)		
학년	학부 1학년	8(24.2)	57(22.7)	65(22.9)	1.636	.802
	학부 2학년	9(27.3)	55(21.9)	64(22.5)		
	학부 3학년	6(18.2)	68(27.1)	74(26.1)		
	학부 4학년	10(30.3)	69(27.5)	79(27.8)		

	학부 5학년	0(0.0)	2(0.8)	2(0.7)		
	전체	33(100.0)	251(100.0)	284(100.0)		
소속	공과대학	4(12.1)	73(29.1)	77(27.1)	14.109	.118
	소프트웨어융합	6(18.2)	33(13.1)	39(13.7)		
	약학대학	0(0.0)	10(4.0)	10(3.5)		
	과학기술융합대학	2(6.1)	28(11.2)	30(10.6)		
	국제문화대학	14(12.1)	50(19.9)	64(22.5)		
	언론정보대학	2(6.1)	12(4.8)	14(4.9)		
	경상대학	4(12.1)	34(13.5)	38(13.4)		
	디자인대학	0(0.0)	6(2.4)	6(2.1)		
	예체능대학	1(3.0)	3(1.2)	4(1.4)		
	기타	0(0.0)	2(0.8)	2(0.7)		
	전체	33(100.0)	251(100.0)	284(100.0)		
국적	한국	25(75.8)	217(86.5)	242(85.2)	10.809	.094
	중국	6(18.2)	29(11.6)	35(12.3)		
	몽골	1(3.0)	2(0.8)	3(1.1)		
	말레이시아	0(0.0)	1(0.4)	1(0.4)		
	태국	0(0.0)	1(0.4)	1(0.4)		
	마다가스카르	0(0.0)	1(0.4)	1(0.4)		
	한/중 이중	1(3.0)	0(0.0)	1(0.4)		
	전체	33(100.0)	251(100.0)	284(100.0)		

$^{*}p<.05$, $^{**}p<.01$,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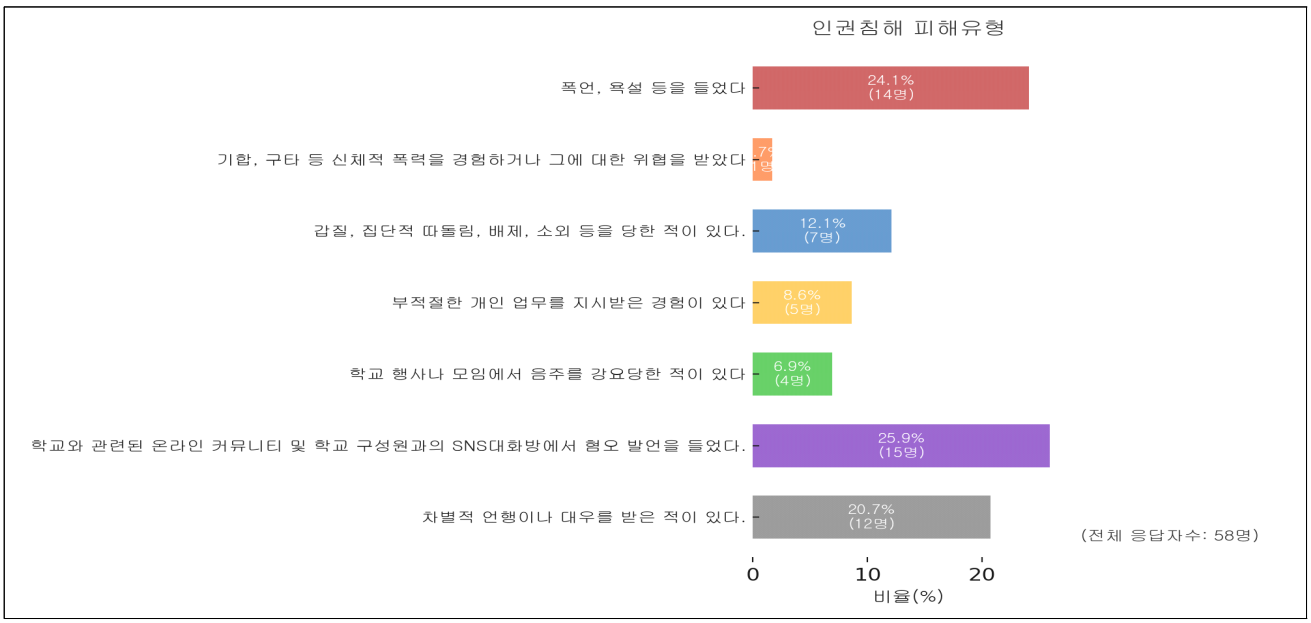
2) 인권침해의 유형 (복수응답)

인권침해 유형에 대해 확인한 결과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 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는 응답이 15명(25.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폭언, 욕설 등을 들었다’ 가 14명(24.1%)으로 나타났다. 그 외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는 응답이 12명(20.7%), ‘갑질, 집단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는 응답이 7명(12.1%)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활동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유용한 정보제공을 받는 동시에 인권침해에 노출될 경향이 많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폭언, 욕설, 갑질, 따돌림, 음주

강요 등의 인권침해 유형도 확인되어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대처방법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함이 필요해 보인다.

<표 16> 인권침해의 유형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폭언, 욕설 등을 들었다	14	24.1
기합,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1	1.7
갑질, 집단적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7	12.1
부적절한 개인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5	8.6
학교 행사나 모임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4	6.9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15	25.9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12	20.7
전체	58	100.0



<그림 7> 인권침해 유형

3) 가해자의 특성 (복수응답)

인권침해 가해자의 특성은 성별과 피/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가해자의 성별은 남성이 22명(50.0%)으로 가장 많았고, 여성이 13명(29.5%), 모름이 9명(20.5%)으로 나타났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선배, 동기, 후배)가 32명(80.0%)으로 가장 많았고, 교수가 4명(10.0%), 직원이 3명(7.5%)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에서는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양상

중 가해자 성별은 주로 남성인 경우가 많으나 가해자 성별을 알 수 없는 비율이 높아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가 많음이 보고되었다.[7] 본 연구에서도 가해자 성별은 남성인 경우가 50%에 해당하고, 성별을 알 수 없음이 20%로 온라인 상에서의 피해일 경우로 추측할 수 있었다.

<표 17> 가해자 특성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성별 (*n=44*)	남성	22	50.0
	여성	13	29.5
	모름	9	20.5
	전체	44	100.0
관계 (*n=40*)	학생(선배)	15	37.5
	학생(후배)	3	7.5
	학생(동기)	14	35.0
	교수	4	10.0
	기관장(총장, 부총장)	1	2.5
	직원	3	7.5
	전체	40	100.0

4) 인권침해 발생장소 (복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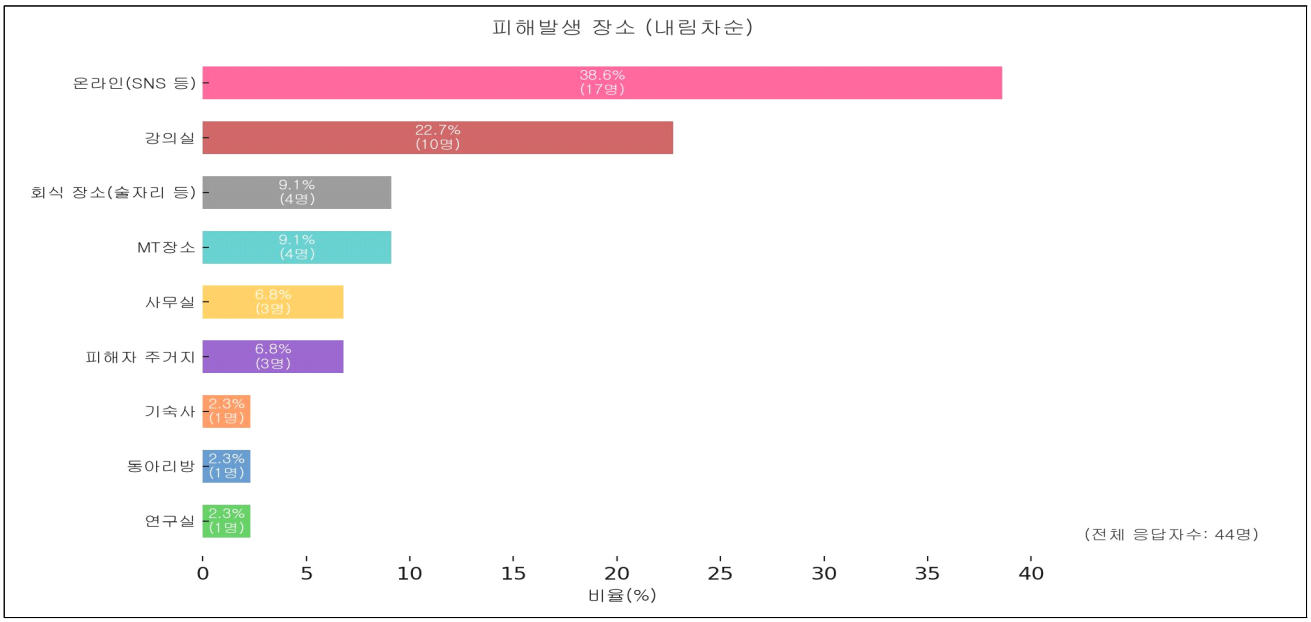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를 묻는 문항에서는 ‘온라인(SNS 등)’이 17명(38.6%)으로 가장 많았고, ‘강의실’이 10명(22.7%)으로 확인되었으며, ‘회식장소(술자리 등)’, ‘MT장소’가 각각 4명(9.1%)으로 나타났다. 그 외 사무실이 3명(11.1%), 기숙사, 동아리방, 연구실이 각각 1명(3.7%)으로 나타났다. 인권침해 발생장소는 온라인 공간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8> 피해발생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강의실	10	22.7
기숙사	1	2.3
동아리방	1	2.3
사무실	3	6.8
연구실	1	2.3
피해자 주거지	3	6.8
회식 장소(술자리 등)	4	9.1

7) 장다혜 외 2인, 앞의 보고서.

MT장소	4	9.1
온라인(SNS 등)	17	38.6
전체	44	100.0



<그림 8> 피해발생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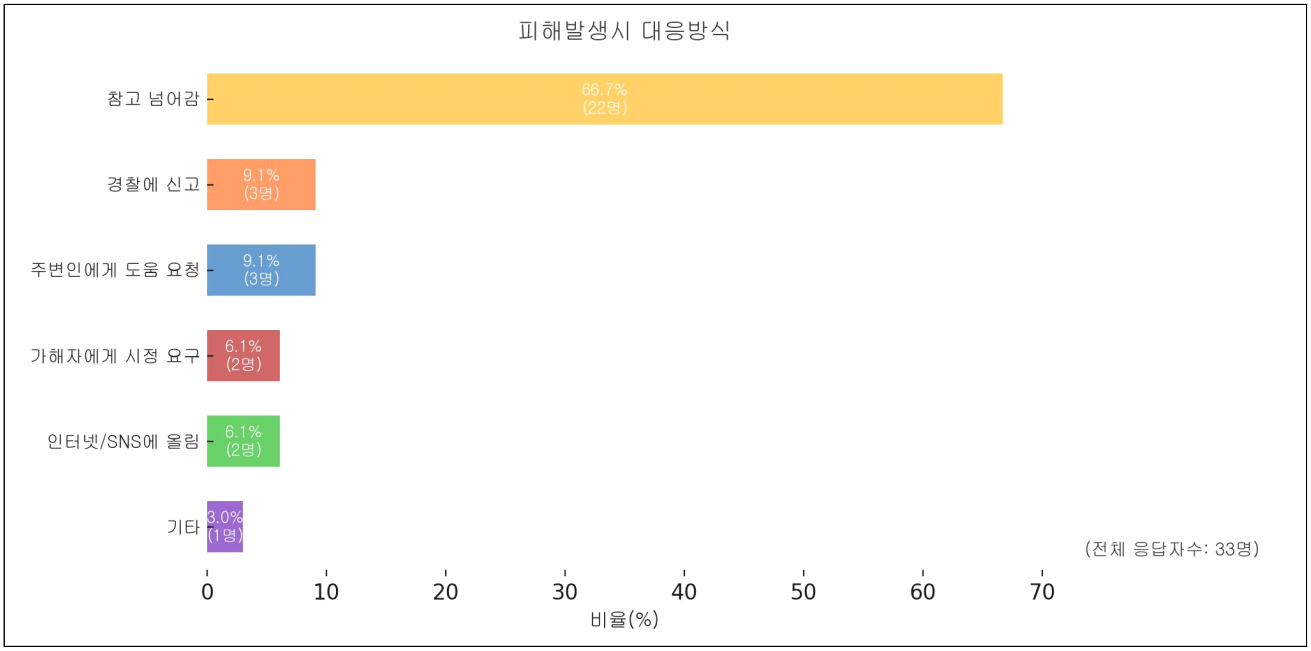
5) 피해 발생 시 대응방식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 어떻게 대처했는지를 물은 결과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22명(66.7%)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공식적인 문제제기로서 '경찰에 신고'한 경우는 3명(9.1%)로 나타났고,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한 경우가 2명(6.1%)으로 확인되어 적극적 대응은 총 5명(15.2%)에 머물렀다. 그 외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경우가 3명(9.1%)이었고,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경우가 2명(6.1%)으로 나타나 소극적인 대응 양상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9> 피해발생시 대응방식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가해자에게 시정 요구	2	6.1
경찰에 신고	3	9.1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	3	9.1
참고 넘어감	22	66.7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림	2	6.1
기타	1	3.0

전체	33	100.0



<그림 9> 피해발생시 대응방식

‘참고 넘어감’으로 응답한 이유에 대해서는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 봐 염려되어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렵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등의 응답이 있었다.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문제 제기자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조사되었고, 폭력 및 인권침해의 사안처리가 어려운 이유는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8]. 따라서 인권침해를 사건화한 피해자 대다수는 원래 제기했던 사건보다 그 이후에 발생하는 2차 피해로 인한 고통을 겪을 수 있어, 인권침해 사안처리의 개시부터 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인권침해 피해자가 자신의 문제를 터놓고 상담할 수 있도록 대학 구제기구의 역할 확립 및 접근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6) 인권침해 경험 후 가장 힘들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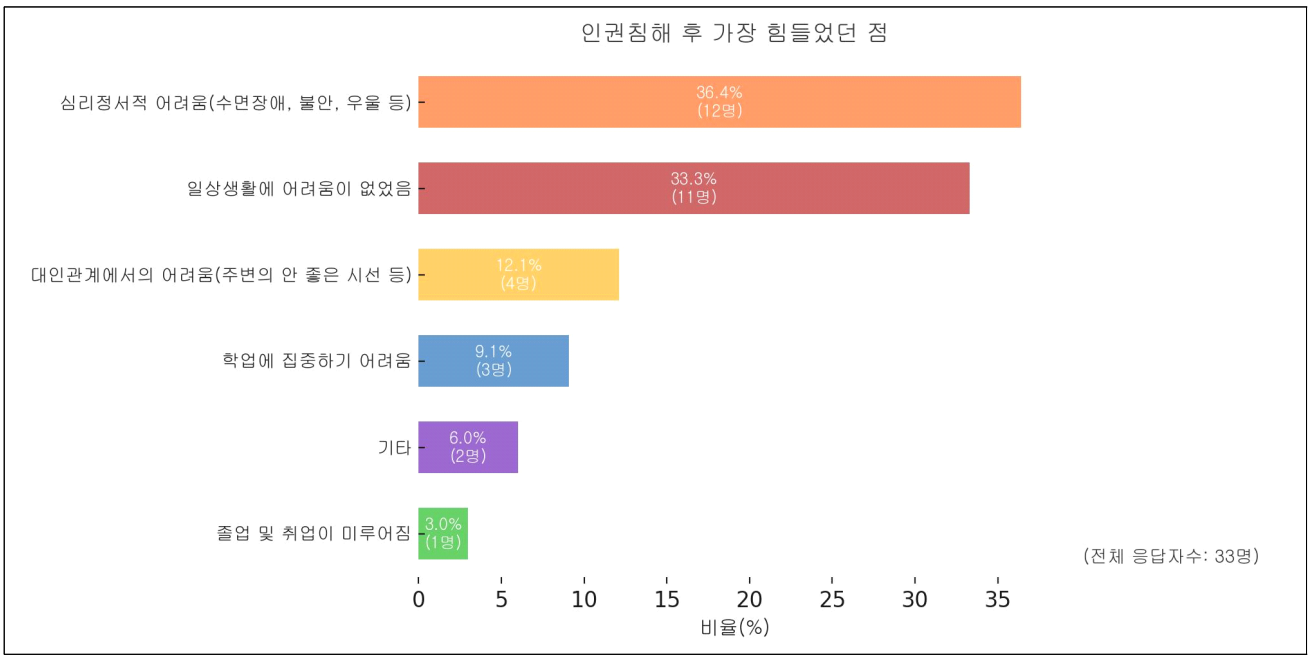
인권침해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수면장애, 불안,

8) 장다혜 외 2인, 앞의 보고서.

우울 등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있었다’ 가 12명(36.4%)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가족 및 지인들의 왜곡된 시선 등으로 인한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 이 4명(12.1%)으로 나타났으며,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이 4명(12.1%)’ , ‘졸업 및 취업이 미루어짐이 1명(3.0%)’ 등으로 확인되었다. 인권침해 경험도 피해자들의 심리·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되어, 지원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지속적 연계체계가 필요해 보인다.

<표 20> 인권침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 (단위: 명, %)

구분	빈도	비율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11	33.3
심리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 불안, 우울 등)	12	36.4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3	9.1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 좋은 시선 등)	4	12.1
졸업 및 취업이 미루어짐	1	3.0
기타	2	6.0
전체	33	100.0



<그림 10> 인권침해 후 가장 힘들었던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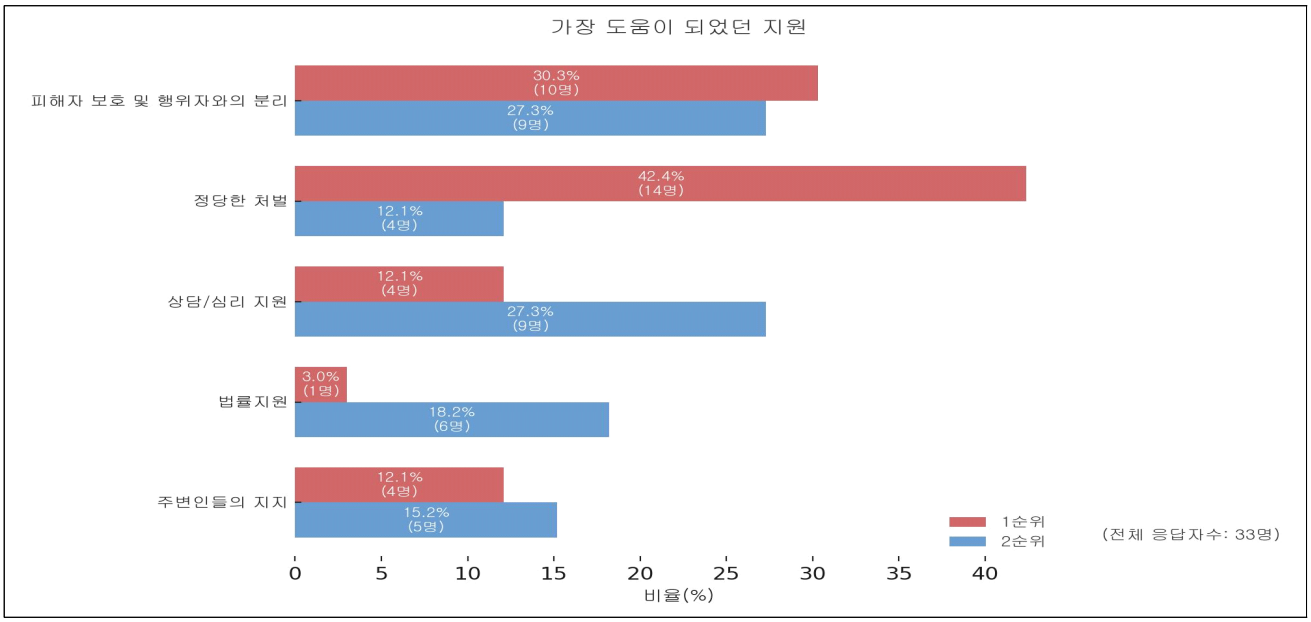
7)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인권침해 경험 이후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을 확인한 결과 1순위가 가해자의 행동에 대한 ‘정당한 처벌’ 이 14명(42.4%)으로 나타났고, 2순위로는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 가

9명(27.3%), ‘상담/심리지원’ 이 9명(27.3%)으로 확인되었다. 앞서 문항 5) 피해발생시 대응방식에서 소극적 대응의 이유로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 봐’, ‘신고해도 가해자 처벌이 어렵거나 상황이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 라는 응답에서 문제제기를 한 이후에도 변화가 없거나,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될 것에 대한 염려로 적극적인 대응을 꺼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안전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건발생 직후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여겨진다. 또한 2순위에서도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 및 상담과 심리지원이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사건처리와 더불어 피해자들의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표 2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	정당한 처벌	상담/심리 지원	법률지원	주변인들의 지지	전체
1순위	10(30.3)	14(42.4)	4(12.1)	1(3.0)	4(12.1)	33(100.0)
2순위	9(27.3)	4(12.1)	9(27.3)	6(18.2)	5(15.2)	33(100.0)



<그림 11>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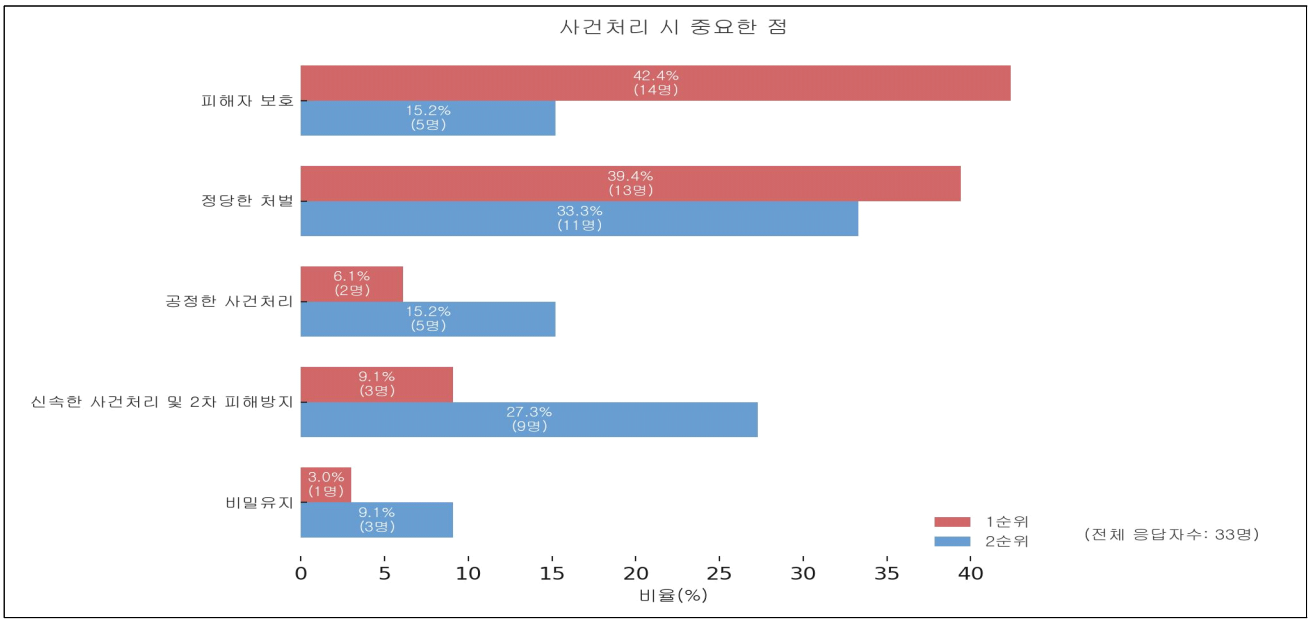
8) 사건처리 시 가장 중요한 점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무엇인지를 확인한 결과 1순위로 14명(42.4%)이 ‘피해자 보호’ 를 응답하였고, 2순위로는 11명(33.3%)이 행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 로 응답하였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문항 7) 가장 도움이 되었던 지원, 문항

8) 사건처리 시에 가장 중요한 점으로 모두 '피해자 보호'를 응답한 바 있어 인권침해 사안 처리의 전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교「인권침해방지 및 처리에 관한 규정」제17조(긴급조치)에서는 인권침해 행위의 중지 및 공간 분리, 기타 신고인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보호에 대한 중요성을 명시하고 있기에 재학생들에게 이러한 점을 알리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표 2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단위: 명, %)

구분	피해자 보호	정당한 처벌	공정한 사건처리	신속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	비밀유지	전체
1순위	14(42.4)	13(39.4)	2(6.1)	3(9.1)	1(3.0)	33(100.0)
2순위	5(15.2)	11(33.3)	5(15.2)	9(27.3)	3(9.1)	33(100.0)



<그림 12> 사건처리 시 중요한 점

제 5 절 인권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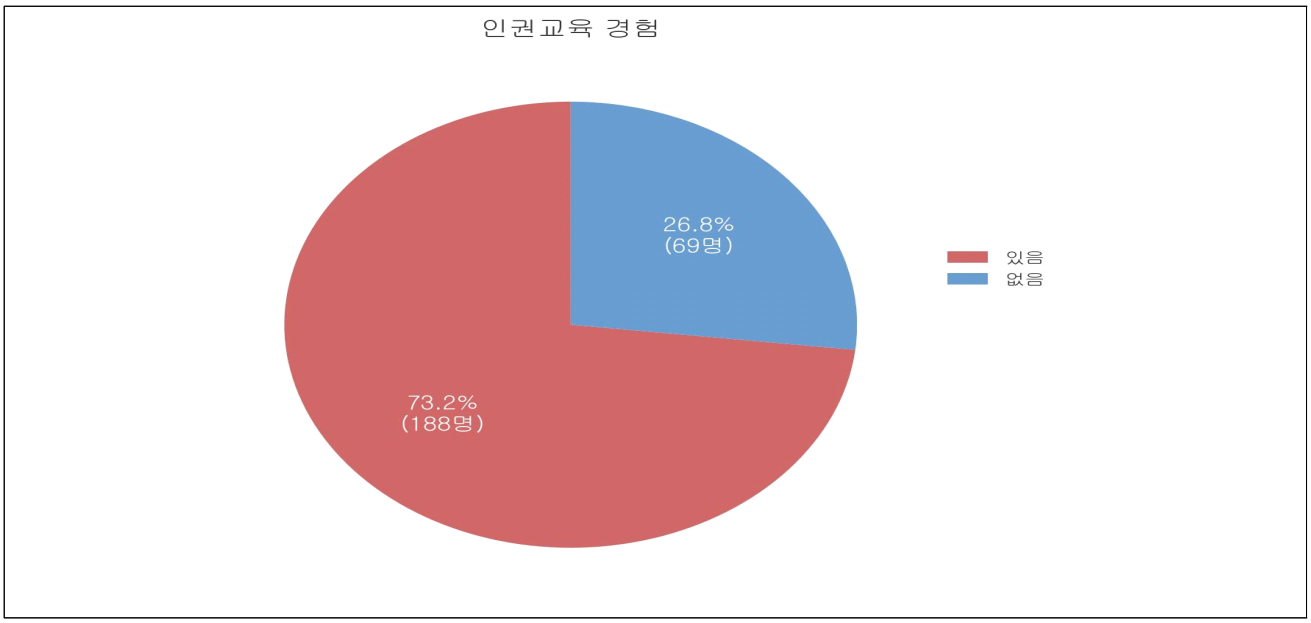
1) 인권교육 경험

본 문항은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조사 응답자의 188명(73.2%)이 '경험 있음'에 응답하였으며,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응답자는 69명(26.8%)으로 확인되었다. 인권교육을 경험한 방식은 다양하였는데 전체 응답자 중 156명(83.0%)가 학교에

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교육을 통해 인권교육을 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교에서는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과 더불어 온라인 인권교육을 상시 제공함으로써 누구든지 인권교육을 접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23> 인권교육 경험 (단위: 명, %)

구분	분류	빈도	비율
인권교육 경험유무	있음	188	73.2
	없음	69	26.8
전체		257	100.0



<그림 13> 인권교육 경험

<표 24> 인권교육 장소 (단위: 명, %)

구분	빈도(명)	비율(%)
학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	23	12.2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교육	156	83.0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교육	8	4.3
기타	1	0.5
전체	18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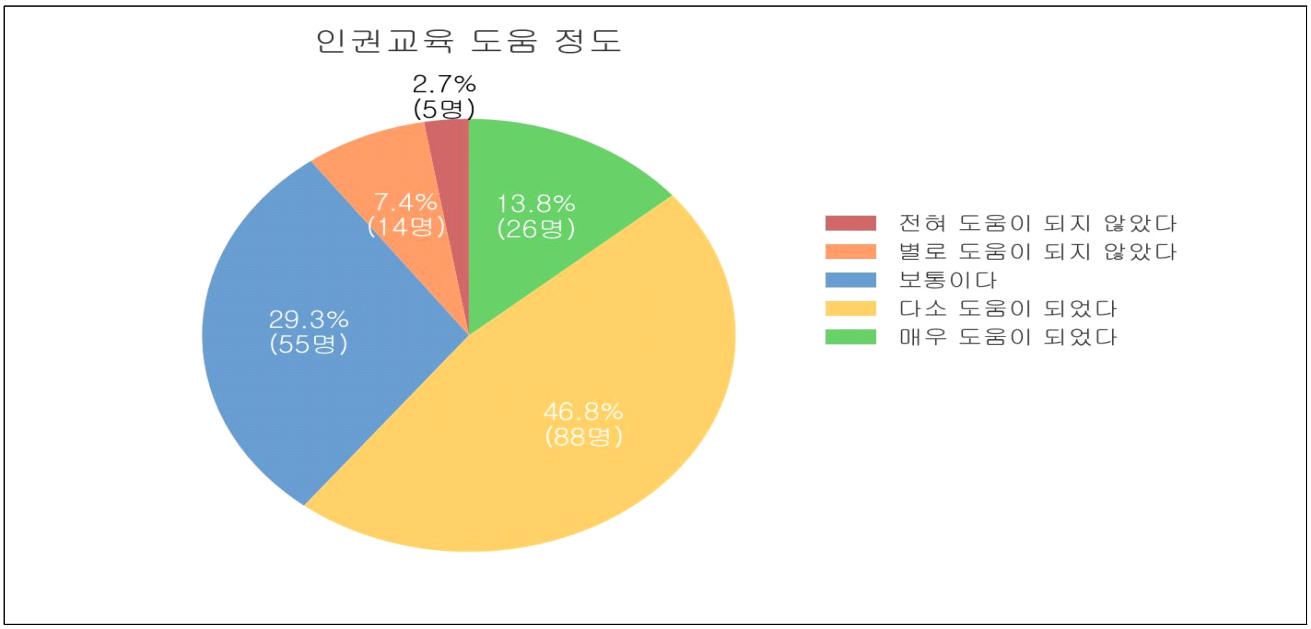
2) 인권교육 도움 정도

인권교육 경험이 있는 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확인한 결과 '다소 도움이 되었다' 라는 응답이 88명(46.8%)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도움이 되었다' 가 26

명(13.8%)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114명(60.6%)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는 긍정응답을 하였다. 반면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응답은 19명(10.1%)에 그쳐 인권교육이 다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표 25> 인권교육 도움 정도 (단위: 명, %)

구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보통이다	다소 도움이 되었다	매우 도움이 되었다	전체
인권교육 도움 정도	5(2.7)	14(7.4))	55(29.3)	88(46.8)	26(13.8)	188(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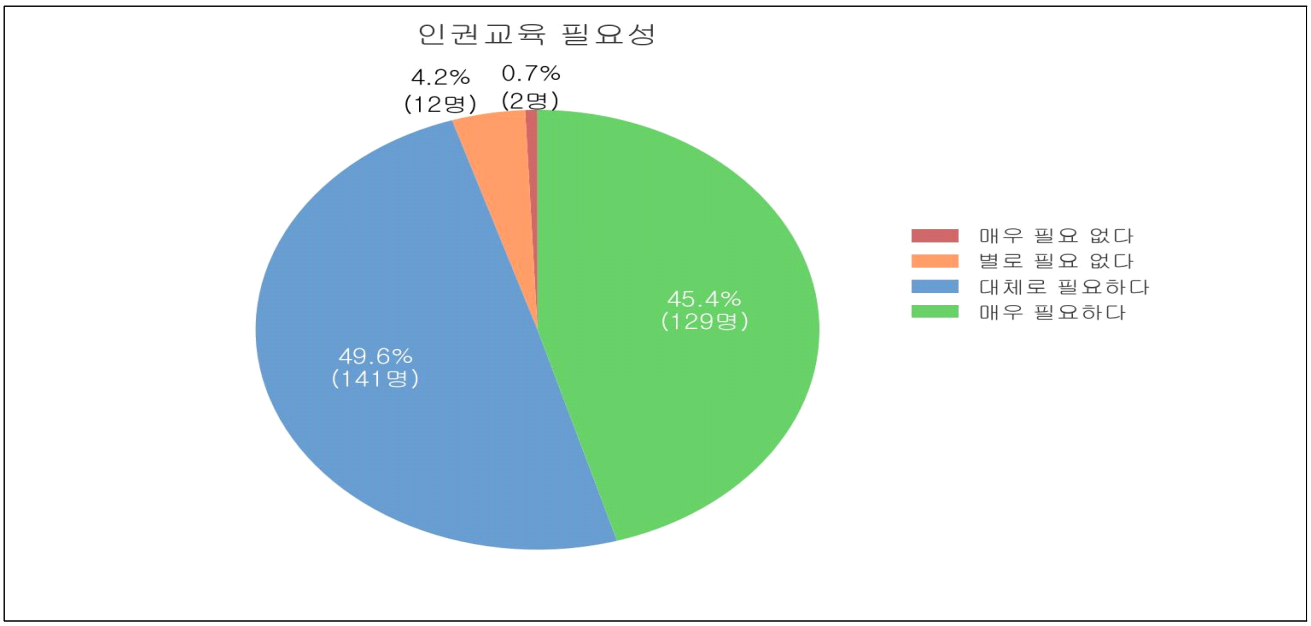
<그림 14> 인권교육 도움 정도

3) 인권교육의 필요성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한지를 묻는 문항에서는 '대체로 필요하다' 라는 응답이 141명(49.6%)으로 가장 많았고, '매우 필요하다' 가 129명(45.4%)으로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270명(95%)이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온라인 인권교육의 상시제공 및 지속성이 필요해 보인다.

<표 26> 인권교육 필요성 (단위: 명, %)

구분	매우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대체로 필요하다	매우 필요하다	전체
인권교육 필요성	2(0.7)	12(4.2)	141(49.6)	129(45.4)	284(100.0)



<그림 15> 인권교육 필요성

제 6 절 자유 응답 내용

본 조사에서는 효율적인 인권교육 제공과 인권센터의 역할 향상을 위해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공유함으로써 향후 인권센터의 운영에 반영해 보고자 하였다.

1) 인권교육 주제에 대한 의견

학내에서 가장 필요한 인권교육 주제가 무엇인지를 물은 결과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방법, 차별과 혐오에 대한 교육,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교육 등이 있었으며, 응답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권 침해 경험 시 대응 방법
- 인종 차별 교육
- 민감한 주제, 남녀 성별 갈등, 세대 갈등, 성소수자 혐오 등
- 무근거 성별갈등
- 남녀간, 소득 분위간의 혐오 중재
- 교수 학생 간 상호존중
- 본인의 인권이 중요해 자유로워야 한다는 것을 핑계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존중받기 위해 인권의 정확한 개념을 인지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 에브리타임에서의 안 좋은 주제에 대한 동조 예방
- 학과 차별, 인종차별, 젠더와 성소수자 인권 관련 교육
- 성별에 따른 혐오표현 금지
- 학우 간 비속어 사용 환경 지양
- 혐오표현, 온라인 상 혐오표현을 고치기 위한 방안
- 어떤 것이 인권 침해인지 정확히 알고, 대응경로에 대해서 구체화 하는 것
- 잘못된 양성평등 관념에 대한 것
- 성평등 교육이 정말 시급합니다. 교내 에브리타임을 보면 하루에도 여성혐오를 조장하는 글들이 쏟아집니다. 다른 정보들을 얻으려고 들어갔다가 매번 무력감을 느끼고 어플을 종료합니다. 반박하고 싸우다가도 논리없이 쏟아지는 혐오표현에 정말 큰 무력감을 느낍니다. 그저 시간이수를 위한 허울뿐인 성평등 교육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성평등 교육을 시행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차별적인 요소나 성불평등 요소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부족한 학우들을 위해 성평등 교육,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시행해주셨으면 합니다.
- 현재 우리 학교에는 많은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데 에브리타임 등의 커뮤니티 내에서 특히 중국인 유학생에 대한 차별과 혐오 발언이 많아 볼 때마다 불쾌하고 도가 지나치다고 생각했음. 이와 관련한 교육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음.
- 인권침해의 기준 및 피해 시 대처방법
- 무엇이 혐오인지, 자작 없이 혐오 발언을 할 수 있고 혐오자가 될 수 있으며 누구도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 무지로 비롯된 잘못을 어떻게 바로잡아야 하는지 등
- 다름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교육
- 사이버 공간에서의 인권침해
- 포용과 이해, 다문화 이해, 책임과 존중 교육
- 사이버 불링, 갑질, 따돌림
- 사회적 약자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위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장애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장애인이 겪는 혐오와 차별에 대해 깊게 생각하고 이해해본 적이 없었지만, 장애와 미디어교육이라는 교양 과목을 수강하며 장애인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볼 수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과목을 수강하며 제가 어떠한 편견을 갖고 살아가는지와 제가 무지한 부분까지 차별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현재 사회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대우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 계속해서 정당성을 요구하며 특혜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커뮤니티와 SNS에서 이루어지는 혐오 표현을 검토하고 이러한 생각, 상황들이 현실에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개인의 성향과 생각에 달려있어 개선이 어렵겠지만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떠한 개선 방향은 제시하기 어렵지만 이러한 사회 현상을 연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점을 찾아 우리 사회를 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커뮤니티 내 인권교육
- 혐오표현의 실태와 영향
- 성평등 교육과 혐오표현 자제 교육. 학교 에브리타임 등 재학생만이 이용 가능한 커뮤니티에서도 남녀

갈라치기 등의 성별에 관한 논쟁과 혐오가 끊이지 않고 있다.

- 온라인 상에서의 인권존중
-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 배려심과 이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 기본적 인권에 교육
- 혐오나 부정적 감정없이 소통하는 법
- 남녀관계와 국적 차별

2) 인권센터 개선에 대한 의견

본 조사 응답자들에게 인권센터에 대해 바라는 점을 수렴한 결과 인권센터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많았으며, 다양한 캠페인을 실시해 주길 요청하는 내용들이 있었다. 학생들의 다양한 응답내용은 아래에 제시하였다.

- 항상 응원합니다.
- 활동 활발히 해주세요.
- 좋은 교육과 행사 감사합니다.
- 더 많은 행사 개최
-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접했으면 좋겠습니다.
- 더 많은 홍보 및 행사 진행
- 학생들이 더 많이 인식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 다양한 행사가 진행되어 인권에 대한 관심이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 대학생에게 필요하고 보장받아야 하는 윤리적 권리 특강 요망
- 에타관리...는 힘들겠죠.
- 홍보를 해줬으면 좋겠다. 있는지도 몰랐다.
- 언제나 고생하십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인권 관련 강연 마련해주셨으면 합니다. 특히 여성과 성소수자 인권 관련 강연자분이 오셨으면 합니다.
- 커뮤니티를 방치하는 것이 아닌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 더 적극적인 홍보
- 부정적인 결과를 낳게 된다는 쪽에 초점을 두고 접근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것 같습니다.
- 인권센터를 알릴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 부스 운영
- 온라인 교육 말고 의무적인 오프라인 인권 교육을 실시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회성이 아니라 한 학기 혹은 두 학기 정도 교양 강의 형식으로 의무적인 인권 교육이 필요해보입니다. 온라인 교육은 제대로 강의 및 내용을 이수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고 특히 교내 에브리타임 게시판만 보더라도 온라인 교육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려면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 혹은 입학 직후인 1학년 시기에 의무적으로 들어야 하는 강의 형태로 성평등 교육 및 인권 교육 강의

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발 부탁드려요. 교육도 단순히 강의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셜미디어에 있는 혐오발언들에 대해 공부하거나 성차별적인 상황이나 문제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꼭 오프라인으로 주위 다른 학우들과 함께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함께 고민해보고 생각할 수 있는 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 대응경로 구체화
- 인권센터 홍보
- 흥미를 끄는 주제의 특강이나 행사에 인권교육을 녹여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 센터 홍보, 신뢰감 부여
- 좀 더 액티브한 활동들을 하셨으면 좋겠다.
- 홍보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온라인에서 이루어지는 혐오표현에 대해 사람들이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데 온라인 혐오표현도 오프라인과 동일하게 누군가를 상처 입히는 행위라는 점을 알리기 위한 교육이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다양한 캠페인
- 혐오가 가득한 공동체사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교육과 상담을 이어가주셨으면 합니다. 이겨낼 수 있게.
- 인권센터 공식 계정을 만들어 에브리타임에 가입했으면 좋겠다. 혐오조장 등의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람이 보일 경우 가해자를 나무랄 수 없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조치를 취해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 인권센터에서 좋은 일을 하는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잘 알려지지 않은 것 같아 홍보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항상 파이팅입니다.
- 고생 많으십니다.
- 성차별, 성희롱, 성폭력 등은 남성도 당할 수 있는 것이고, 실제로도 우리 사회에서 남성에 대한 성희롱은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많이 행해지고 있는데, 여성이 당하는 경우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항상 여성이 피해자 남성이 가해자라는 생각을 학생들에게 심어주지 말고, 어떤 케이스든지 가해자 피해자의 성별만 바꾸면 남성도 피해자고 여성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학생들에게 캠페인이나 여러 교육활동을 통해 인지를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 더 다양한 활동을 통한 홍보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 홍보가 더 필요합니다.
- 적극적으로 홍보를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소외받는 사람이 없도록 노력해줬으면 좋겠다.
- 좀 더 적극적인 행사를 개최하면 저처럼 모르는 사람도 적어질 것 같습니다.
- 저처럼 인권센터의 존재에 대해 모르는 학우가 많을 것 같아 더 홍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만약 인권침해 피해자 발생한다면 바로 찾아갈 수 있도록 홍보가 지원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보다 더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음
- 참여시 다양한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이 직접 그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대처할지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을 것임
- 뭐든 좋습니다.
- 항상 고생하십니다.
- 학생들이 더 많이 알고 경각심을 알도록 해 주세요.
- 더 적극적인 활동 부탁드립니다.
- 정기적인 인권 교육 실시
- 현재는 그냥 형식적으로만 인권교육 하는 느낌이라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실질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 인권 혹은 비슷한 이슈 관련 외부 초청 인사의 강연이 있다면 더 인권센터의 활동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우리 인권을 지킬 수 있도록 힘을 다해주세요!
-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교육이 이뤄졌으면 좋겠습니다!
- 에타에 혐오표현 (특히 인권관련)이 넘쳐납니다. 조치방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 여러 영상으로 나눠져 있지 않고 간단하고 짧은 온라인교육
- 인권센터가 존재하기 때문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홍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온라인 강의로 진행되는 강의는 학생들이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매우 당연하고 우리 생활에 밀접한 문제이므로, 너무 어렵지 않도록 학생들이 즐겁고 가볍게 참여할 수 있는 행사를 자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 활동들을 진행할 때 지금보다 더 활발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 형식적인 교육과 홍보가 아닌 현실적인 심각성과 필요성을 인지시키며 진행하면 좋겠다. 결국 학생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설득시키는 방법을 고안해야 한다.
- 인권센터가 학내에 존재한다는 것이 더 홍보되어야 하며 사람들이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야 한다.
- 인권 보호를 위한 인권 센터 홍보가 더 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 잘은 모르지만 인권에 대해 노력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다양한 행사
- 더욱 많이 홍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더 활발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바란다.
- 흥미로운 주제의 특강이나 특강 참여 선물로 참여유도
- 센터에 대한 학생대상 홍보가 필요해보임
-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중요하다.
- 많이 홍보하면 될 것 같아요.

제 4 장 결론 및 제언

본 조사는 한양대학교 ERICA 캠퍼스 학부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인식과 혐오표현, 인권침해 발생 현황을 확인하고, 교내에서의 발생 유형과 대처방식, 도움이 되었던 지원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함으로써 인권센터의 나아갈 방향과 역할을 모색하고 나아가서 안전한 캠퍼스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284명으로 여성이 181명(63.7%), 남성이 101명(35.6%), 기타 성별(본인이 인식하는 사회적 성으로 응답)이 2명(0.7%)이었다. 19세-29세가 282명(99.3%)로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학년은 3학년이 74명(26.1%), 1학년이 65명(22.9%), 2학년이 64명(22.5%), 5학년이 2명(0.7%)로 전 학년에서 본 조사에 참여하였다. 소속은 공과대학이 77명(27.1%)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국제문화대학으로 64명(22.5%), 소프트웨어융합대학이 39명(13.7%), 경상대학이 38명(13.4%) 등으로 나타났다. 국적은 한국이 242명(85.2%)로 가장 많았으나 중국, 몽골, 말레이시아, 태국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조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인권센터의 인지도 및 인지경로를 확인한 결과 많은 학생들이 인권센터에 대해 알고 있었지만, 전체 응답자의 101명(35.6%)이 인권센터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인권센터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학생들은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현수막 등)을 통해 알게 된 경우가 87명(29.8%)이었고,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를 통해 인지한 경우가 70명(24.0%)로 응답자의 53.8%가 홍보물 등의 실물 자료 및 온라인 홍보를 통해 인식한 것으로 나타나 실물 자료의 배부 및 온라인 홍보의 활성화로 인식률을 높이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혐오표현 경험에 대해서는 조사응답자의 총 210명(73.9%)이 혐오표현을 직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혐오표현을 자주 보거나 들은 곳으로는 1순위가 온라인 카페나 에브리타임과 같은 커뮤니티 사이트로 온라인을 통해 혐오표현을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온라인에서의 혐오표현의 부정적 영향과 심각성에 대해 인식하도록 돕고, 사이버상에서의 존중과 예절에 대해 교육함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 경험 유무에 대해서는 전체응답자의 33명(11.6%)이 인권침해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여 대략 10명 중 약 2명이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인권침해의 유형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의 혐오 발언과 폭언, 욕설 등을 들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이버 상에서의 인권침해 예방 교육 및 대처방법 가이드를 제공함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 가해자는 남성이 가장 많았으나 여성 가해자도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성별을 모르는 경우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측할 수 있었다. 당사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생(선배, 동기, 후배)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교수, 직원 순으로 나타나 학생 간의 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 학생들에 대한 인권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

기된다.

인권침해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들었던 점으로는 ‘심리, 정서적 어려움’이 가장 많았으며, 도움이 되었던 지원으로는 ‘정당한 처벌’,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 ‘상담/심리지원’ 등으로 확인되어 안전한 환경에서 어려움을 상의하고 피해발생시 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이루어지며, 2차 피해 방지 및 심리상태에 대한 진단 및 세심한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를 입은 경우에 어떤 대처방법을 택했는지를 조사한 결과 ‘참고 넘어갔다’는 응답이 22명(66.7%)로 소극적 대응방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한 이유로는 문제제기 이후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신고해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한 염려,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며, 주변에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선행연구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에 대응하지 못하는 주된 이유가 문제제기자에 대한 낙인과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조사되었고, 폭력 및 인권침해의 사안처리가 어려운 이유로 구성원들 간에 이해관계와 결부되어 2차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9]. 따라서 인권침해 사안처리의 개시부터 전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필요하며 비밀유지, 피해자 보호 등의 안전한 처리절차에 대한 정보제공이 필요해 보인다.

조사 응답자를 대상으로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유무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88명(73.2%)가 인권교육 수강 경험이 있었으며, 인권교육의 방식은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교육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인권교육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응답자의 114명(60.6%)가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었다’라고 긍정응답을 하였으며, 인권교육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270명(95%)가 ‘인권교육이 필요하다’는 긍정 응답을 한 것으로 확인되어 지속적인 인권교육으로 구성원의 인권감수성을 지속적으로 증진함이 필요해 보인다.

본 조사응답자를 대상으로 인권센터에 대한 개선의견을 자유롭게 수렴한 결과 인권침해 시 대처 방법에 대한 교육, 혐오표현의 실태와 부정적 영향, 소수자 관련 차별과 평등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또한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으로는 학생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및 프로그램이 확대되기를 바라는 의견들이 다수 있었다.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는 주제를 선정하여 특강을 개최하고, 온라인 교육 이외 오프라인 교육을 실시해 주길 바란다는 의견들도 있어 향후 인권센터의 운영에 반영함이 필요해 보인다.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센터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자면 다음과 같다.

먼저 본교 인권센터가 학생들이 원활하게 접근 가능한 센터로서의 인식 확대를 위한 효율적인 홍보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본 조사에서는 인권센터를 인지한 경로가 홍보물이 가장 많아 학생들이 상시 접할 수 있는 홍보물을 제작하고 비치함으로써 접근성 강화의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온라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다양한 내용

9) 장다혜 외 2인, 앞의 보고서.

의 혐오표현을 접하고 있었으며 인권침해 경험에 있어서도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는 응답과 폭언, 욕설 등을 들었다는 응답이 많았다. 이에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차별 없는 태도를 함양하기 위한 비폭력 대화와 갈등관리 교육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센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상시 인권교육을 제공하고 있으나, 사건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좀 더 실제적이고 효율적인 인권교육을 구성하여 제공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침해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은 심리, 정서적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하여, 이와 관련된 지원이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잘 형성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인권침해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 보호가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피해자보호를 최우선으로 지향하는 인권센터의 방향성을 유지하고, 앞으로도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교 재학생들은 인권침해시 대처방법 및 다양한 주제의 인권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으므로, 향후 인권센터의 프로그램 및 교육 운영에 반영하여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인권센터는 본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운영에 반영하며 서로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평화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참고문헌]

<국내 자료>

김소영, 「대학원생 권리강화 방안 연구」 보고서, 교육부, 2018.

오윤정, “배려교육을 통한 혐오표현 개선 방안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21.

장다혜 외 2인, 「대학 내 폭력 및 인권침해 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19.

홍성수, “대학 인권센터의 의의와 과제”, 「법과사회」 제60호, 법과사회이론확회 2019.

홍주현, “온라인 혐오표현의 확산 네트워크 분석: 이슈 속성별 확산 패턴 및 혐오표현의 유형과 강도”, 「한국언론학보」 제60권 제5호, 한국언론학회, 2016.

경북대학교 인권센터, 「대학 내 인권침해 피해경험 실태조사 문항 개발 연구」 보고서, 2022.

국가인권위원회, 「대학 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2020.

한양대학교, 「2019년도 한양대 ERICA 캠퍼스 재학생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19.

한양대학교, 「2023년도 한양대 ERICA 캠퍼스 대학원생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2023.

[부록]

2024년도 한양대학교 ERICA 재학생 인권 실태조사

안녕하세요.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에서는 인권 친화적 캠퍼스 문화 구현을 목적으로 **<2024년도 재학생 인권실태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본 설문조사는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본 설문지의 각 질문은 옳고 그른 답이 없으므로 각 문항을 잘 읽고, 자신의 경험에 기초하여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모든 내용은 본 조사의 통계, 연구의 목적으로만 사용될 예정이며 작성해 주신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 유지가 보장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수집하여 안전한 캠퍼스를 만들기 위한 실질적인 대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응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2024년 10월

Part A. 기초 정보 문항 수 5

개인정보수집 이용동의

아래와 같이 본 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확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인권실태조사 연구, 통계 활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성별, 나이, 소속, 학번, 연락처, 이메일 주소, 기프티콘 제공 목적 연락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조사를 위한 목적 달성 후 1개월 이내 폐기

1. 동의 2. 동의하지 않음

1.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남성 2. 여성 3. 기타_____

2.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1. 19세 미만 2. 19~29세 3. 30~39세 4. 40~49세
5. 50~59세 6. 60세 이상

3. 귀하의 학년은 어떻게 되십니까?

1. 학부 1학년 2. 학부 2학년 3. 학부 3학년 4. 학부 4학년
5. 학부 5학년 6. 학부 6학년

4. 귀하의 소속은 어떻게 되십니까?

1. 공과대학 2. 소프트웨어융합대학 3. 약학대학 4. 과학기술융합대학
5. 국제문화대학 6. 언론정보대학 7. 경상대학 8. 디자인대학
9. 예체능대학 10. 기타_____

5. 귀하의 국적은 어디에 해당 되십니까? (복수국적일 경우 복수선택 가능)

1. 한국 2. 한국 이외의 국적_____

Part B. 인권센터 인식 및 개선 문항 수 7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6. 귀하는 우리 대학에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다면 잘 처리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그렇다 2. 대체로 그렇다 3. 보통이다 4. 별로 그렇지 않다. 5. 매우 그렇지 않다.

7. (위 6번에서) '별로 그렇지 않다' 또는 '매우 그렇지 않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공정하게 사건을 처리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2. 비밀유지가 잘 안될 것 같아서
3. 피해자 보호가 잘 안될 것 같아서 4. 신고한 것으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서
5. 학교 내 기관을 신뢰할 수 없어서 6. 기타 ( )

8. 귀하는 우리 대학에 인권침해 사건을 처리하는 인권센터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1. 알고 있다. 2. 모르고 있다.

9. (위 8번에서) '알고 있다' 고 응답한 경우 인권센터를 알게 된 경로는 무엇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침해 및 성평등 침해 상담·신고 경험　　2. 인권센터 축제 부스, 인권강연회 등 행사 참여
3. 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4. 홍보물(브로셔, 포스터, 현수막, 배너 등)
5. 온라인 홍보(알리미, 이메일 등)　　6. 기타 (　　)

10. 귀하는 인권센터가 하는 일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1. 잘 알고 있다.　2. 어느 정도 알고 있다.　4. 잘 모른다.　5. 전혀 모른다.

11. 귀하는 인권센터에서 하는 역할이 다음 중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침해 및 성평등 침해 상담　　2. 신고사건 조사 및 처리
3.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 분리　　4. 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5. 인권의식 향상 문화 행사　　6. 잘 모르겠음
7. 기타_____

12. 귀하는 학내의 인권 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센터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인권센터의 역할 홍보　　2. 인권의식 개선을 위한 문화행사(캠페인,공모전등)
3. 인권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 활성화　　4. 다양한 인권이슈 특강 개최
5. 학내 인권실태 조사 및 연구　　6. 인권침해 대응책자 및 매뉴얼 발간
7. 기타 _____

Part C. 혐오표현 경험　　문항 수 4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혐오표현이란
성별, 장애, 나이, 지역, 인종,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종교 등을 이유로 부정적인 고정관념이나 편견, 무시, 모욕, 위험, 차별이나 폭력을 부추기는 말이나 비하 표현, 욕설을 의미합니다. 즉, 소수자 집단을 대상으로 차별, 혐오(조롱 및 증오), 선동의 적대적 내용을 발언, 글, 기타(몸짓, 제스쳐, 그림 등)의 방법으로 드러내는 것.

13. 귀하는 우리 대학 재학 중 유튜브, 인스타그램, 에브리타임 등의 온라인 또는 지인과의 대화, 강의 등 오프라인에서 혐오 표현을 보거나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1. 매우 자주 있다. 2. 자주 있다. 3. 별로 없다. 4. 전혀 없다.

14. 귀하가 혐오 표현을 자주 보거나 들은 곳을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친구/지인
2. 온라인 카페나 커뮤니티(에브리타임 등)
3. 메신저 서비스(카카오톡,밴드,라인,위챗등)
4. SNS(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5. TV / 라디오
6. 포털 등의 뉴스 댓글
7. 온라인 게임
8. 기타_____

15. 귀하는 혐오 표현을 접했을 때 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1. 혐오표현에 동의한다는 표현(좋아요, 동의하는 글 등)을 했다.
2. 혐오표현에 동의하지만 보고 지나쳤다.
3.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었다.
4. 혐오표현에 반대하지만 보고 지나쳤다.
5. 혐오표현에 반대하는 표현(싫어요, 반박하는 글 등)을 했다.

16. 귀하는 우리 사회에서 혐오 표현이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개인의 차이와 다양성을 존중하는 문화나 의식이 부족해서
2. 일자리 부족 등 사회 곳곳에 경쟁이 심해서
3. 빈부격차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해서
4. 정치인, 언론 등이 혐오·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확산시켜서
5. 개인들이 유튜브 등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혐오 차별을 조장하는 표현을 확산시켜서
6. 혐오표현을 해도 법적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아서
7. 기타_____

Part D. 인권침해 경험 문항 수 12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경험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인권침해
인권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며 이러한 권리가 훼손되었을 경우를 인권침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학은 교수, 학생, 직원 등 다양한 관계 속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며 안전한 환경에서 학습할 수 없는 학습권 침해, 폭언, 욕설 등의 인격적 모욕, 나이나 외모, 출신지역, 국적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17. 귀하는 최근 4년 이내 인권침해를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 귀하가 경험한 인권침해의 유형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폭언, 욕설 등을 들었다.
2. 기합, 구타 등 신체적 폭력을 경험하거나 그에 대한 위협을 받았다.
3. 갑질, 집단적 따돌림, 배제, 소외 등을 당한 적이 있다.
4. 부적절한 개인 업무를 지시받은 경험이 있다.
5. 학교 행사나 모임에서 음주를 강요당한 적이 있다.
6. 학교와 관련된 온라인 커뮤니티 및 학교 구성원과의 SNS대화방에서 혐오 발언을 들었다.
7. 차별적 언행이나 대우를 받은 적이 있다.
8. 기타_____

19. 귀하가 경험한 인권침해의 가해자는 누구였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학생(선배)
2. 학생(후배)
3. 학생(동기)
4. 교수
5. 강사
6. 조교
7. 기관장(총장, 부총장)
8. 직원
9. 기타_____

20. 인권침해 가해자의 성별은 무엇이었습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남성
2. 여성
3. 잘 모름

21. 인권침해가 발생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복수 응답 가능)

1. 강의실
2. 기숙사
3. 동아리방
4. 사무실
5. 연구실
6. 피해자 주거지
7. 가해자 주거지
8. 회식장소(술자리 등)
9. MT장소
10. 온라인 공간(SNS등)
11. 기타_____

22. 귀하는 인권침해 <u>발생시 어떻게 대처</u>하였습니까?

1. 가해자에게 시정을 요구했다.
2. 인권센터에 신고했다.
3. 경찰에 신고했다.
4. 주변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5. 학내 기관(소속대학, 학생회 등)에 도움요청
6. 외부 기관(상담소 등)에 도움을 요청했다.
7. 그냥 참고 넘어갔다.
8.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
9. 기타_____

23. (위 22번에서) '그냥 참고 넘어갔다' 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1. 문제가 더 심각해질까봐
2.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3. 신고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4. 신고해도 바뀌지 않을 것 같아서(가해자 처벌 어려움 등)
5.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서
6. 주변에 알려지는 것이 두려워서
7.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
8. 기타_____

24. (위 22번에서) '인권센터에 신고' 한 경우 전반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3.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4.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25. (위 24번에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라고 응답한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1. 비밀 유지가 되지 않아서
2. 사건처리가 오래 걸려서
3. 피해자의 요구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아서
4. 피해자 보호가 잘 되지 않아서
5. 기타_____

26. 인권침해 경험 이후 일상생활에서 가장 힘든 점은 무엇이었습니까?

1. 일상생활에 어려움이 없었음
2. 심리적 • 정서적 어려움(수면장애,불안,우울등)
3.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움
4. 대인관계에서의 어려움(주변의 안좋은 시선등)
5. 신체적 외상 및 정신과 진료 등으로 병원에 다녀야 했음
6. 졸업 및 취업이 미루어짐
7. 기타_____

27. 다음 중 인권침해 피해회복에 가장 도움이 되는 지원은 무엇이었는지 순서대로 2개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피해자 보호 및 행위자와의 분리
2. 정당한 처벌
3. 상담·심리지원
4. 법률지원
5. 주변인들의 지지
6. 기타_____

28. 귀하는 인권침해 사건 처리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순서대로 2개를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_____, 2순위_____

1. 피해자 보호
2. 정당한 처벌
3. 공정한 사건처리
4. 신속한 사건처리 및 2차 피해방지
5. 비밀유지
6. 기타_____

Part E. 인권교육 및 개선 문항 수 6

※ 다음 문항들을 읽고 평소 자신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곳에 √ 표시를 해 주십시오.

29. 귀하는 지난 1년간 인권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요?

1. 있다
2. 없다.

30. (위 29번에서) '있다면' 어디에서 인권교육을 받았나요?

1. 학교에서 진행한 집합교육
2. 학교에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 교육
3. 외부 기관에 참가한 대면 교육
4. 외부 기관에서 진행한 온라인(사이버) 교육
5. 기타_____

31. 귀하가 받은 인권교육이 인권을 이해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1. 매우 도움이 되었다.
2. 다소 도움이 되었다.
3. 보통이다
4.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
5.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32. 귀하는 인권교육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1. 매우 필요하다 2. 대체로 필요하다. 3. 별로 필요 없다. 4. 전혀 필요 없다.

33. 학내에서 가장 필요한 인권교육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34. 인권센터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자유롭게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_____

2024 인권실태조사
–ERICA 학부 재학생을 중심으로–

- 발행일 2025년 2월
- 발행처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한양대학로 55 학생회관 1층 인권센터
  (031) 400–4337
  ehrc@hanyang.ac.kr
- 연구책임 홍정현 (한양대학교 ERICA 인권센터 책임연구원)